Ⅷ. 결 론

RBC방식에서의 보험리스크평가는 주로 파산확률 등 위험이론에 입각하여 보험리스크계수를 산출하고 있는 반면, EU방식에서의 보험리스크평가는 수리적·통계적접근방식이 아닌 비율방식을 보다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부합한 수리적·통계적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을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켜 각 위험별 리스크계수를 어떻게 차등화하여 가느냐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RBC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경우 위험별로 보험리스크계수를 차등화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보업계에 보험리스크관련 데이터를 집적의뢰,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 각각에 대한 리스크계수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리스크계수의 차등화가 파산확률이론에 기초한 보험리스크평가모델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위험별에 따른 데이터의 집적이 실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분석모델의 정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단기적으로 위험별 리스크계수의 세분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EU식 지급여력제도상의 보험리스크평가방식을 지향하되, RBC방식으로의 전환시 보험리스크계수를 파산확률모형에 의해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RBC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방향성을 요약·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별 리스크계수의 단계별 차등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제1단계에서는 사망리스크, 제2단계에서는 일반사망리스크, 재해사망리스크 등으로 2구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사망리스크, 재해사망리스크, 생존보장리스크, 재해입원리스크, 질병입원리스크, 기타리스크 등으로 세분화하여 리스크계수를 산출하는 단계적 차등화방안이 체계적으로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급보험금 관련 DB의 세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험리스크계수 산출의 기본 데이터는 지급보험금과 관련된 데이터라 할 수 있고 이 지급보험금 관련데이터(보유계약고관련 DB포함)는 지급구간별로 지급건수 및 금액이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 즉 지급보험금 관련 DB는 ① 등구간(최소한 10만원단위)별로 실제지급건수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구축하되 ② 이 경우 지급보험금 및 위험보험료의 건수와 금액은 위험별, 즉 보장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이들 지급보험금관련데이터는 월별, 분기별, 연별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작성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의 유용성검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단계에서는 위험별데이터의 분류 및 집적 검증 등이, 2단계에서는 변수의 선정방법 및 적용상의 적정성여부 등이, 3단계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적용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보험리스크관리기법으로서의 적합성 등이 검증되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선진국 RBC제도상의 보험리스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분석모델의 지속적 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RBC제도상의 보험리스크계수로의 적용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을 기초로 확률이론에 입각하여 차등화된 보험리스크계수를 산정, RBC제도 도입시 적용하되 파산확률은 1/ 20(0.05), 리스크대상자산은 위험보험금으로 선정하는 것이 현행 EU식제도와의 형평성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은 사차손익률추이, 지급보험금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험리스크계수의 변동추이 등은 각 생명보험사의 보험리스크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 즉 또 하나의 리스크관리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과제로는 통일화된 DB구축체제의 정비, 리스크감독정책 등에의 활용대책강구,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의 발전적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통일화된 DB구축체제의 정비면에서 볼 때 ① 연별, 분기별, 월별로 보험리스크평가관련 DB가 재정비되는 등 DB의 표준화작업이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보험업회계처리기준 및 월말보고서 제출자료 등에 보험리스크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분류방법 및 기준 등을 사전에 제도화하여 보험리스크관련 DB의 관리효율성을 제고시키며 ③ 보험리스크평가관련 DB의 보유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리스크감독정책 등에의 활용대책강구측면에서 볼 때 ① 상시리스크감독체제인 RAS식 리스크평가체제의 보험리스크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RBC제도의 보험리스크계수산정모델로써 원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차원의 체계적인 검토작업과 더불어 단계적인 적용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③ 미국 및 일본보험계리인회 등에서 제시한 보험리스크평가모델, 그리고 다른 보험리스크평가모델 등을 본 모델에 의한 분석결과, 분석프로세스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는 종합적인 연구도 감독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향후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① 국내 생명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시뮬레이션분석과 충분한 검증작업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② 시산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보험사 고유의 리스크인 보험리스크의 평가액은 파산확률, 안전할증의 수준, 지급보험금의 평균 및 분산 등 여러요인에 따라 변동되므로 향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와 통계시기 등에 대하여도 과거경험자료에 의한 충분한 검토 및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모델에 가정한 포아송분포 및 감마분포의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으로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의 정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 보험리스크평가모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② 8개 생명보험중 일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서 생보업계 평균의 리스크계수를 산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정형화된 데이터의 미비 등으로 분포의 적합성 검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 시안적인 분석

결과로 인하여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 및 미일 RBC식 지급여력제도 상의 보험리스크계수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상의 한계점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 등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